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6.30.(토) ~ 2018.7.27(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어학원은 생각보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딱 4주 정도 살만한 시설이고 건물은 5층인데 엘리베이터 없어서 계단을 이용해야하지만 수업하는 곳이 매층 마다 있어서 힘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학원에서 시내는 택시나FB 타고 15분정도 가야되고 어학원 산속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 편의시설 없지만 비가 많이 내려도 침수 되지 않고 근처에 트리탑 어드벤쳐라는 엑티비티 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고 산속이다 보니 벌레들도 많고 방안에 들어올 수 있으므로 문을 빨리 닫고 안에서 과자먹을 경우 부스러기 때문에 벌레들이 많이 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필리핀에 도착한지 거의 바로 레벨테스트를 보는데 토익 lc part1,2 그리고 문법이랑 part7같이 독해 있지만 토익보다 난이도가 쉬워서 걱정 많이 안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1대1로 프리토킹과 사진묘사로 테스트는 끝납니다. 레벨테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성적 순으로 같이 다니는 조원들이 정해져서 대략 4주가량 같이 수업듣고 자주 만나기 때문에 잘 보시길 바랍니다. 수업은 1:1수업 4시간, 그룹수업 4시간 하루에 총8시간 수업을 하며 수업은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10분 쉬고 50분씩 수업을 합니다. 주로 1:1수업은 조그만한 방에 들어가서 숙어나 단어등 선생님들이 영어로 설명해주시고 그룹수업은 토익스피킹,mmc수업등 재밌는 수업이 많습니다. 특히 mmc 수업은 뮤직비디오 1개와 광고비디오 만드는게 최종 목표인 수업인데 이 수업 때문에 조원들과 더욱 친해지게 돼서 좋았던 수업입니다. 그리고 수업도 많고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과 맞지 않는 선생님들과 수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땐 사무실에 가거나 점호시간에 자신과 맞

	지 않는 이유를 말하면 됩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첫 번째로 수빅투어 그날 새벽에 도착해서 다음 날 학생매니저분들과선생님, 그리고 배정받은 조원들과 한달 동안 살 수빅투어를 합니다. 어디서 택시타야하는지, 환전은 어디서 하는지 등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수빅베이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을 가서 식사를 하는데 비록 날씨가 좋진 않았지만 그때 수빅베이에서 본 노을은 한국과 다른 모습으로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안바야 코브 리조트 필리핀은 날씨가 좋아도 하루에 여러 번 비가 오기 때문에 가기 전까지 걱정했습니다. 리조트에 수영장이랑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서 놀고 싶은데 도착할 때 까지 먹구름이 잔뜩 끼여 있었는데 막상 놀다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놀기에 좋았습니다. 저희 기수는 밥을 뷔페랑 이태리레스토랑으로 나눠서 갔는데 이태리 레스토랑은 친구들과 나눠 먹으면 별로 비싸지도 않고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그 중에 생망고 주스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세 번째로 마닐라 마닐라를 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도난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애들이 구걸을 해도 주지 말라고 교육을 받고 가서 대체 어떤 곳일지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마닐라를 도착하고 마닐라 주변 건물들과 나무를 보는데 오기 전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수빅과 다른 멋이 있었습니다. 일정상에 요트투어도 있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취소되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여름의 필리핀 생각하면 무척 덥고 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국의 여름보다 시원합니다. 햇빛은 강해도 하루에 여러번 비가 내리기 때문에 습하긴 하지만 한국의 여름보단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에서는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여벌의 긴팔을 들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필리핀에 가기 전에 마닐라에 총기 사건이 있어서 걱정이 많았지만 건물 들어 갈 때마다 가방검사를 따로 하고 수빅에 있어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 외부 숙소( ) 기타( )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숙소 4주동안 살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단 와이파이가 느리고 비가 많이 올때마다 와이파이가 잘 안됩니다.. ㅜ
식사	학교식당(o)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저는 그전에 학식보다 열배 맛있다, 음식하시는 분들이 미슐랭 나가도 될 거 같다 등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나머지 솔직히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앗지만 맛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식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시내를 나가기 위해서는 택시나 FB를 타야되는데 9시 정도에 sending service를 게시판에 붙혀 놓습니다. 학교당 10명의 학생을 시내로 데려다 주는데 5시 정각에 바로 가고 따로 FB나 택시를 안 기다려도 되고 돈도 절약할 수 있어서 이 서비스를 잘 이용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7,000	출국 전 사전 납부
개인사비	450,000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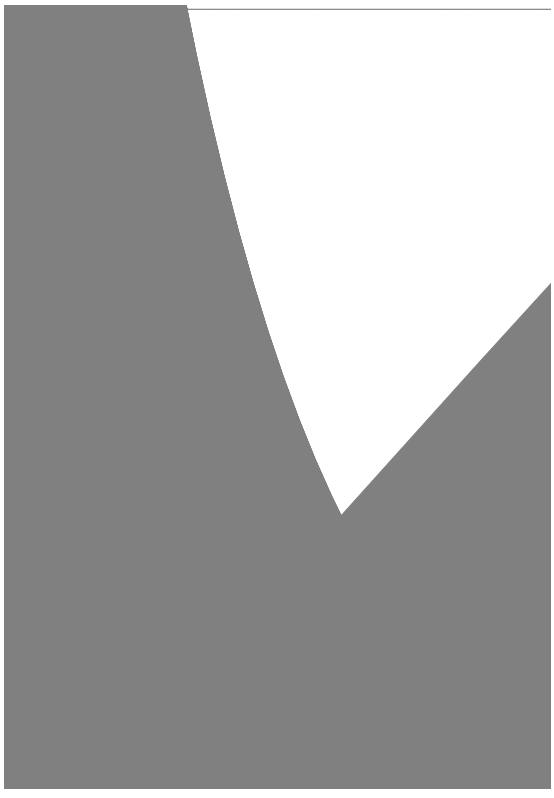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제가 갔을 때는 우기라서 한국보다 시원했긴 했지만 그래도 필리핀이고 여름이니까 휴대용선풍기 들고 가면 유용하게 쓰고, 마닐라투어나 어딜가든 거기서는 외국인이고 한국사람이 돈이 많다는 것도 소매치기범들은 잘 알고 있고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다니거나 큰 백팩에 넣는 것 보다 가볍게 지갑,핸드폰 넣을 수 있는 힙색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아프다고 병원가면 최소 4~5만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약이나 덥기 때문에 땀띠약 등 미리미리 구비해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필리핀 물은 우리나라 물과 다르기 때문에 몇몇 친구들이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단 가게에서 주는 물을 몸이 적응을 할 때 까지 먹지 마시고 버거킹이나 맥도날등 프랜차이즈에 있는 탄산음료도 안됩니다. 대신에 병이나 캔으로 된 탄산음료를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필리핀 도착하자 모기에 물릴까봐 바르는 모기약이랑 이런거를 몇 개 가져 갔었는데 거기가 오히려 더 싸고 좋습니다. 저는 필리핀하며 엄청 덥고 가는 곳곳 마다 진흙에 신발이 더러워 질까봐 샌들 하나랑 반팔티셔츠 몇 개만 가져가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생각보다 덥지 않았고 오후5시까지 에어컨 아래에서 수업받다가 나가서 놀기 때문에 셔츠나 긴 바지 입어도 충분했습니다. 경치 좋은 곳도 가고 사진도 많이 찍으니까 저랑 달리 예쁜 옷, 멋진 옷 많이 입고 사진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4주동안 8시간 씩 영어만 쓰다보니까 영어실력이 월등하게 좋아졌다라고 못하겠지만 확실히 전 기수에 갔다 온 사람들 말처럼 외국인을 만나도 피하지 않고 문법적으로 안 맞을 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말을 해서 의미가 통하게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전과 가장 큰 다른 점 같다. 그리고 군대에 있으면서 머리도 짧고, 자유도 없고, 여러 안 좋은 일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낮았는데 1:1선생님이 계속 항상 자신감을 갖고 살아라고 너는 자기 제자들 중에 최고라고 비록 진실은 아니더라도 매일 마다 들으니까 전과 지금의 모습은 똑같을지라도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영어실력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고민도 들어주시고 어디를 가면 좋은지 말해주고 수업할 때마다 너무 열정있게 가르쳐 줘서 항상 감사했고 처음 수업 받을 땐 짧은 시간동안 정이 생길까 하지만 4주동안 매일 만나다 보니 선생님들과 정이 안 생길 수 없었고 마지막 수업 쯤에 선생님들이 편지지와 선물 주는데 받기만 하면 미안하니까 한국에서 비싸진 않아도 몇 개 사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이 아니면 못 만났을 좋은 친구들과 좋은 조원들 알게 되고 친하게 돼서 저는 필리핀 단기어학연수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좋은사람들, 자존감을 되찾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다른 학교들도 많이 와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액티비티 일정이 갑자기 바뀌거나 하루 전에 공지를 해주는 등 조금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음 기수부터는 좋아 질 거라고 생각하고 필리핀 어학연수를 기회로 지금부터 남은 방학 집에만 있지 않고 1:1 선생님 말처럼 뭐든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MOA		Fun friday
마닐라투어		마닐라투어